



하이트진로, 전북문화관광재단에 500만원 기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재단 대회의실에서 (주)하이트 진로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2022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리산의 바람'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전달받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에 따르면 기업-예술 상호발전을 위한 전북형 메세나 사업 발굴 및 기업 소상공인 후원체계 마련을 통한 도내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도내 기업·기관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하이트진로는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번에 진행되는 전라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편 (주)하이트진로는 전국의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 및 장학사업, 소외계층지원 및 봉사활동, 공익캠페인 및 환경보전, 중국동포지원사업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분야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 플랫폼을 비전으로, 지역 기업의 전북형 메세나 사업 활동 장려에 주력해 앞으로도 도내기업-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모델을 구축하고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시민의 힘으로! 전주의 큰 꿈 세계로!'

'2022년 제29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시민 화합 한마당 3년만에 개최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전주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전주시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렸다. 전주시에 전주시체육회,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5개 동 주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제29회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힘으로! 전주의 큰 꿈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3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에서는 시민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승부를 떠나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참여한 35개 동 대표들은 단체출발기와 203각, 줄다리기, 400m 계주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또한 투호, 고리갈기, 윷놀이, 다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르신부 경기와 장애인부 경기도 펼쳐졌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과거 실내대회 이후 사라진 동별 입장식도 오랜만에 선보였으며, 라스트포워드와 이희정밴드 등 지역예술인의 축하 공연도 펼쳐져 참여한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대회 결과 어르신부 종합우승은 효재4동이 차지했으며, 장애인부에서는 전라북도농어인협회 전주시지회가



종합우승팀이 됐다. 또 동대항 경기의 경우 서신동과 송천2동이 각각 완산구 우승과 덕진구 우승을 차지했으며, 종합우승은 효재4동에게 돌아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회사에서 "전주 시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에 승부를 넘어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대회를 마쳐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하고 신명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면서 "500년 동안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주의 소중한 역사를 지켜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끌어올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학생들 진로탐색 기회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사회책임투자)프로그램 연계, 지난날 29일 남원용성고교와 협약기업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남원지사는 지난 5월부터 ESG 경영간담회 및 협약체결, 공사제출 설명회, 주요 시설물 견학, 협업기업 현장 견학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사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유)강강 건설 시공현장과 주(주)왕산군 군산공장을 방문, 학생들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보여줌으로써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사에서 추진한 세계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방조제와 33센터, 홍보관 등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지사 관계자는 "참석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와 건의 사항을 수렴해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놀이축제' 성료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제6회 육아놀이행복다하기 가족놀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익산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및 가정양육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익산 대표 영유아 놀이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유아 숲 지도사 준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영유아 부모님들의 나눔의 장인 육아 플라마켓을 통해 육아용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채소 모종 심기와 조물락 비누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부모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그동안 공부한 환경에 관한 지식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글로벌문화관은 세계전통의상과 악기를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몸으로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호, 학대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인권 확대의 개념 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수자원공사, 백미 20kg 250포 취약계층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백미 20kg 250포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재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 물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현물출자 했으며, 도내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또한 기탁된 백미는 전라북도 지역 생산 쌀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유역본부장은 "이번 기금 출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보업 행정부지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물품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이재훈 무주 인상좋은 농부 대표, 이웃돕기 귀감

무주군 부남면에서 인상 좋은 농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훈 대표가 무주군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면서 녹각 영지버섯 진액 88박스(환가액 3백만 원)를 기탁,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무주군청을 찾아 황인홍 무주군수에게 "장기간 동안 지속돼 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힘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사업 환경에서도 관내 주민들을 위한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군은 접수된 물품을 푸드뱅크(마켓)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인상 좋은 농부를 운영하면서 품질 좋은 무주산 농·특산물인 상황버섯과 영지버섯 재배와 함께 진액을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자율방범대, 결의대회 · 화합행사 가져

무주군자율방범대 2022 범죄예방 결의대회가 지난 10월 1일 무주군 안성면 안성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전북 자율방범연합회 경세광 회장, 무주군 자율방범대 이내화 회장, 군의회의원, 윤정훈 도의원, 무주군 7개 대대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1백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경품 순으로 진행됐으며, 적극적인 자율방범 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패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무주군 자율방범연합대의 결의대회를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갖게 된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헌신적이고 희생과 봉사 자세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을 기원한다"라고 축하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수고와 범죄 없는 마을이 탄생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자율방범대연합회 이내화 회장은 "우리는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서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고 안전한 무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체육행사 · 직무연수 개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정희)는 지난달 30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전라북도지인 경력단절여성 취업담당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육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 협동! 화합!'이란 주제로 단체경기, 이벤트 경기로 진행,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길렀다. 2009년 전북지역 새일센터 개소 이래 최초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각 새일센터별 상품을 마련해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끈끈한 화합을 촉진시켰다. 정정희 센터장은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새일센터 직원들의 자존감 향상과 새일센터 간 정서적 충전과 소통이 더욱 공고해질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새일센터가 동반 성장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활력소가 되는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 사랑밥 작은 목욕탕 오늘부터 운영

남원시 운봉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사랑밥 작은목욕탕을 10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봉읍은 목욕탕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 대청소와 방역, 보일러 정상가동 확인, 수도 점검 등 개장 준비를 마쳤으며, 윤탕과 냉탕, 탕의심, 화장실 등 최적의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수·금에는 여자, 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수·금에는 여자, 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수·금에는 여자, 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수·금에는 여자, 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국군의 날 사랑의 물케익 전달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품으로 사랑의 물케익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인 2022년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에 선정된 향군여성회(향으로 나누는 행복)와 한국전기인공공사 남원순창지사가 함께 했다. 한편 관주영 행정지원과장은 "국가안보와 국토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특히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 활동에 앞장서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자연 · 공감 청춘 음악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자연과 공감을 주제로 한 청춘음악회를 지난 1일 오후 2시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했다. 청춘미리크 전북권과 협업으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에는 어쿠스틱 사운드를 구현하는 '4U'S', 민속악을 연주하는 '뱀뱀', 현대무용 예술단체 '춤은 여행가' 등이 참여하여, 가을을 맞아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과 덕유대 이영장 이용객에게 자연 속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음악회는 어시걸과 인접한 탐방안내소 입구 야외에서 버스킹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안전재난과 직원 농촌일손돕기 실시

진안군 안전재난과 직원 20여 명은 30일 농촌 인력 감소와 농촌사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해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 상승 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인삼밭 철거작업을 돕고, 고추밭의 고추수확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민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막대한 상황에서 도와주시 너무 감사하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장은 "일손 돕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바쁜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